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설문원**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과 기록학적 의미
1) 개념
2) 출현 배경과 의미
3) 비판
3.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 사례
1) 사례 개요
2) 시사점
4. 지역 기록화를 위한 제안
1) 국내 사례와 지역 기록화의 방향
2) 기록화 대상의 선정 - 선택적·집중적 기록화
3)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 - 게이트웨이의 구축
4)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
4) 기록화 수준의 결정
5. 맺음말

* 이 연구는 2009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또한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일시: 2010. 6. 11, 장소: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발표한 “지역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정·보완한 논문임을 밝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 연구』 23, 2010;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 20(3), 2009;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3), 2008;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2005.

[국문초록]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으로서 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어온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기록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建造)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인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응용하여 디지털 기록화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록 평가론, 지역 기록화, 기록 수집 전략, 로컬리티 기록화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백여 년 간 한국 사회를 휩쓴 격변은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민들의 일상과 의식,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게다가 오랫동안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지역은 국가의 경험과 기억을 바로 자신들의 것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통신, 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지역 균일화(homogenizing) 현상이 더해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기록은 기억을 보존하는 장치이며 남겨진 기록은 기억(역사)을 재구성한다. 지역의 집단적 기억이 담긴 이러한 기록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에 남겨진 기록은 매우 미약하며 전체적인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 사회의 무수한 경험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환경에서 앞으로 이러한 기억의 블랙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집단적 기억(local memory)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록은 대체로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지방문화원¹⁾, 역사편찬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혹은 어떤 양태로 기록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분산 소장된 파편적 기록만으로는 과거를 재현하거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형상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산되어 소장된 기록들을 확인하고 결락된 부분을 확인하며 이들을 집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 지역은 지역의 문화 및 지식자산을 확충할 수 있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향토사 조사 연구와 함께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으며, 지역 지식의 확대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학에서 기록화 전략은 주로 평가선별(appraisal and selection)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평가선별이란 아카이브로 어떤 기록을 획득할지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의 기록 평가제도는 기록을 산출한 기능(업무)을 평가하는 거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을 평가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지역의 기억이 담긴 기록을 획득하고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지역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개인의 기능·활동 중심의 평가 외에 역사적 사건, 행사, 인물, 유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평가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 기록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방법론은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서구 기록학계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오랫동안 실패한 방법론으로 간주되어왔다. 80년대 중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등장한 이후 이 전략을 적용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지만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 전략은 실제 적용에는 한계를 가진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미국 밀워키 지역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Turner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거대한 채굴장을 해매다가 죽어서 화석만 남은 거대한 포유류 ‘마스토돈’으로 비유하였다.²⁾ Terry Abraham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수단이 아니라 마치 성배(Holy Grail)를 찾는 일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이 전략은 학계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학계가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이 방법론은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실험되고 있었고,

2) Judith Campbell Turner. 1997. “To the Editor,” *Archival Issues* 22, no. 2 (1997): 100. Malkimus 2008에서 재인용)

디지털 환경에서 이 전략의 유용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³⁾.

미국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법론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기록전문직의 정체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수동적 수집가가 아닌 능동적 실천가로서 기록전문직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방법론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한국의 기록관리계는 최근 공공기록물관리법령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파동 속에서 전문직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기록전문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의 전문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중앙보다 지방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전문성에 기반한 실천적 기록관리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록관리 이외의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지역이나 마을, 특정 주제나 사안을 기록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으며,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집단과 개인이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나름의 일정한 원칙과 세계관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기록관리 방법론의 관점에서 재검토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검토는 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John 2008, Malkimus 2009, Hackman 2009 참조.

2)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기록화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기록화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 지역 중심의 기록화 연구, 주제 중심의 기록화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기록의 선별·평가방법론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에서 발표되었으나 그중 특히 기록화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승억⁴⁾은 서구의 기록평가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록의 평가선별을 위한 결정요인을 모형화 하였는데 이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성을 평가론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승일⁵⁾은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 기록화 되었어야 할 영역을 도출한 후 이를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기억으로 남겨야 할 주제, 사건, 이념은 역사연구 경향 분석을 토대로 선정하였고, 기록 생산자인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업무 중요도, 기록 생산 조직 및 기능의 위계화 등을 토대로 기록이 반드시 생산되었어야 할 영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 수집해야 할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방법론은 기능 평가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공문서 평가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공문서 외에 다양한 기록을 포함하는 지역 기록을 선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국토개발 정책 기록의 평가에 관한 이승억⁶⁾의 연구도 기능 평가에 기반한 절차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익한⁷⁾은 불균형하게 남겨진 행정

4) 이승억, 「기록 평가 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10, pp. 37-80.

5)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10, pp. 179-235.

6) 이승억,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 10, pp. 119-152.

기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 역시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제한된 의미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희숙과 류한조⁸⁾는 ‘재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생산,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출처와 원질서의 재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재현은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인 Terry Cook이 말한 ‘맥락의 해체와 재구축 (deconstruction of the contexts)’이라는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⁹⁾ 그러나 이 논문에서 말하는 ‘재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현 대상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현 중심의 기록화가 자칫 활용자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기록의 생산 및 구조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중심의 기록화를 논의한 연구로는 김성일, 정은진, 권소현과 김익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성일¹⁰⁾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주제, 지역, 기관 중심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전략 수행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략 실행에 관한 피상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은진¹¹⁾은 연극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연극의 행위과정을 대상으로 발생기록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

7)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 『기록학연구』 제13호, 2006. 4. pp. 179~203.

8) 이희숙, 류한조, 「재현 중심의 기록학 : 평가, 관리하기, 보기」,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4. pp. 30-40.

9) Cook, Terry,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Spring 2001, p. 32. (Yakel, Elizabeth.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3: 1-25, 2003, p3에서 재인용).

10) 김성일, 『기록화 전략의 일반모형과 그 적용』. 경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11) 정은진,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2009. 4. pp.115-150.

록을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업무 및 행위에 기반하여 기록화 대상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기능 평가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연극이 기록화 대상인지, 다양하고 복잡한 연극 행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을 가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남김으로써 거시 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 맥락 평가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권소현, 김익한¹²⁾은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기록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기록화 대상을 강릉단오제 자체(의식과 기예능 보유자), 관련 활동(의식 준비, 전수), 관련 자료(역사 기록, 유네스코 기록, 유관사업 기록)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발생하는 기록을 파악한 후 이를 누가 어떻게 생산·수집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 주체와 활동, 주제 등을 결합한 기록화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역 문화자원의 기록화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중심의 기록화에 관한 연구는 권순명, 이미영의 연구가 있다. 권순명¹³⁾은 지역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를 5단계로 제안하였는데,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록화를 강조하고 자문단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기록화 우선순위에 반영한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연구는 지역 출처 기록의 망라적 수집,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이상적인 구상을

12) 권소현, 김익한,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 24호, 2010. 4, pp. 173-214.

13)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명지대 기록정보전문대학원 기록관리트랙 석사학위논문, 2008; 권순명, 이승희, 「지역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7, pp. 41-84. 이들 연구에서는 “홀어져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또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통제하는 것” 혹은 기록의 생산, 수집, 보존을 포괄하는 의미로 ‘아카이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카이빙은 본래 보존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의 아카이브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다.

제시하고 있지만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역 기록화라는 주제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 이미영¹⁴⁾은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기록화 범위를 정할 때 유용한 지리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Cox의 말을 인용하며 1995년 대지진이 일어난 효고현을 중심으로 ‘재해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던 한 지역이 재해와 관련된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여 재해 및 재해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기록화 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본 사례 연구이다. 효고현에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적 기록화를 수행하고 도서, 간행물, 신문과 같은 2차 자료뿐만 아니라 메모, 앙케이트 원표(元票) 등을 포함한 1차 자료(原資料)를 수집 대상으로 하여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공기록과 민간기록을 망라하는 포괄적 기록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기록화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재해와 관련 있는 기록이면 어떤 기록이든 다 수집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과 활동 과정의 분석에 기반한 선별·평가를 전제로 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기록화 전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지역 기록의 범위에 ‘지역을 출처로 하는 기록’뿐 아니라 지역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였다는 것과 원시 자료(raw materials)로서의 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2차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재해지역 기록화라는 전체 그림을 그려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해라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지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록화 했다는 점에서 주제 기록화의 사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공공기록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주제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기록화를 지향하는 연

14) 이미영, 「재해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7, pp. 85~116.

구들이 약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방법론적 체계성과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초기적 논의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과 기록학적 의미

1) 개념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이라고 정의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85).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란 용어는 1981년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의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Andrea Hinding이 보존을 위해 선별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미국아키비스트협회(이하 SAA)는 1984년 이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 Helen Samuels가 *American Archivist*지에 전략의 주요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하였고¹⁶⁾ 1987년에는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을 위한 상세한 양식과 지침을 제시하였다.¹⁷⁾

15) Hinding, Andrea. 1982. “Toward Documentation: New Collecting Strategies in the 1980s,” in *Options for the 80s: Proceedings of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Greenwich, Conn.: JAI Press, 1982): 535, 537.). Malkimus(2008)에서 재인용.

16) Samuels, Helen. 1986.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2): 109-124. 오항녕 편역. 『기록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학에서 ‘도큐멘테이션’은 정보검색, 시스템 설명서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기록학에서는 대체로 ‘기록화(記錄化)’나 ‘기록’ 자체의 의미로 해석된다. 행위로서의 도큐멘테이션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 활동, 사건 등의 전모와 변화를 재현하거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Samuels는 도큐멘테이션이 ‘기록’으로 사용될 때에도 ‘records’와는 다른 개념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좁은 의미의 ‘records’가 아키비스트에게 남겨진 기록으로서 수동적으로 수집된 기관의 기록이라면, 도큐멘테이션은 아키비스트가 기관 활동을 가장 잘 증거 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모아진 기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¹⁸⁾ 행위로서의 도큐멘테이션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과 유사성을 갖는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이 용어는 미국의 기록관리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한동안 모든 기록 수집 활동에 유행처럼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⁹⁾ 몇몇 국내 문헌에서도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특정 주제나 사안에 관한 기록 수집전략이라는 일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이 방법론은 1984년 소개된 이후 계속 진화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Malkmus는 이 전략의 핵심 특징을 (1)복수 보존소들의 협력적 수집 (2) 획득한 기록들의 격차를 메우는 데에 필요한 기록의 생산이라고 보았다.²⁰⁾

17) Hackman, Larry and Joan Warnow-Blewett,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50 (Winter 1987): 12-47.

18) Samuels, Helen Willa. 1998. 이은경 역. 『대학 기록』 = *Varsity Letters : Documenting Modern College and Universities*. 서울 : 한울, 2007. 역자 서문.

19) Malkmus, Doris J.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71, Fall/Winter 2008, pp. 384-409.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영역에 대한 기록 수집 : 특정 지역이나 주제를 기록으로 설명하거나 그 역사와 변화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이다. 이는 개별 기관 중심 기록화의 협소함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함이다.

- 협력적 수집 : 여러 기관이 기록을 협력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이다. 복수의 기록관, 혹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이 협력하며, 수집뿐 아니라 종합 목록 및 기술을 생산하고,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수 있다.

- 기록화 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 분석 : 기록을 수집하기에 앞서서 해당 지역이나 주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 이때 관련 기록을 생산한 기관들에 대한 기능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화 계획이 수립된다.

- 결락된 범주와 대상을 위한 기록 생산 : 기록화 대상과 수집된 기록을 비교분석하여 필요한 기록은 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다. 특히 주류 기억이 아닌 대항 기억을 기록화 하는 데 장점을 발휘한다.

- 자문조직의 운영 : 기록화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수집된 기록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문조직(전문가, 기록 생산자, 아키비스트, 이용자 집단, 활동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Samuels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단일 기관에서 수행되는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에 비해 포괄적이며, 주제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에 입각한 기록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방법론이라고 보았다.²¹⁾

20) Malkimus, Doris J. 2008.

21) Samuels, Helen Willa. 1998.

2) 출현 배경과 의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내재된 개념은 197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아키비스트들은 전통적인 입수 업무를 통해서만 잘 재현할 수 없는 사회운동,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 문화적 변동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관리계가 당면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한편 Johnson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출현 과정을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고찰하였다.²³⁾ 그녀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아키비스트가 능동적 활동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미국에서 아키비스트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보관자(keeper)’에서 ‘과거의 형성자(shoper)’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키비스트가 담당해야 할 이러한 역할은 1956년 Schellenberg가 발표한 기록가치론에 이미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가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증거적, 정보적 가치는 유럽의 전통에서 확립된 순수한 행정적 책임보다 폭넓은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²⁴⁾

미국의 기록관리계가 이러한 포괄적 책임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였다. 이는 60-70년대에 전개된 사회운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진보적 사학자인 Howard Zinn은 1970년 SAA 연례회의에서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²⁵⁾ 그는 아키비스트가 소장 컬

22)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 2008, 85-86.

23) Johnson, Elizabeth Snowden.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71, Spring/Summer 2008, pp. 190-202.

24) Johnson 2008, 199.

렉션에 내재하는 엘리트적 편견을 인식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는 기록을 능동적으로 찾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키비스트들이 매우 세심하게 보존하는 기록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엘리트 중심의 편향된 역사기록의 생산은 곧 엘리트 권력화로 이어지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아키비스트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욕망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Zinn의 주장 중 미국의 기록관리계가 특히 주목한 것은 ‘기록 수집자로서의 아키비스트’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아키비스트는 항상 자신들을 역할을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 기록을 의식적으로 구하는 ‘능동적 수집가’라기보다는 기록의 ‘중립적 보관자’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2년 미국아키비스트협회(이하 SAA) 위원회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에서의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된다.

Howard Zinn이 1970년에 수집활동을 통한 전문직 정체성을 인식하라고 주장한 이후, 아키비스트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74년 Gerald Ham의 유명한 연설 “경계에 선 기록관리(The Archival Edge)”에서였다. 여기서 Ham은 아키비스트가 “후대를 위해 우리 시대의 인류 경험에 관한 대표적 기록”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아키비스트들도 느리지만 서서히 새로운 전문직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록전문직의 새로운 개념

25) 여기서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정치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보다 완전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평가수집 주체를 의미한다. Johnson 2008.

26) David Delgado, “The 34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34, January 1971, p. 46;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Midwestern Archivist* 2, 1977, p. 20, 21, 25(originally printed in *The Boston University Journal*, Fall 1971). Johnson 2008, p. 191에서 재인용.

속에서 아키비스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엘리트들은 물론 보통사람들의 과거를 ‘생산’함으로써 기록관이 사회에 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유하는 책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²⁷⁾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유럽에서 형성된 Hans Booms의 도큐멘테이션 계획, 그리고 거시적 기능평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표상을 기록의 개별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²⁸⁾. 즉 미국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도 단일 기관을 넘어서 포괄적인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수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법론은 다르지만 본질적 목표는 동일하다.

아키비스트는 평가를 통해 보관할 기록과 버릴 기록을 선택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기억을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책임을 통해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Johnson은 여전히 이 전략의 실용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반면 Malkimus는 디지털 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전략의 잠재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화석만 남은 마스토돈이 아니며, 제한된 상황에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전략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판

이 전략이 소개되자 열렬한 지지도 있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27) Johnson 2008.

28) 이승익 2005.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기록을 수집·생산할 경우 기록의 유기체적 속성과 증거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Terry Cook은 인위적으로 만든 추상적인 범주의 분석을 토대로 추진되어, 유기체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뿌리 뽑힌 기록 세트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며, 이 방법론이 ‘비기록학적(unarchival)’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기능 중심이라기보다는 주제 중심이라는 점²⁹⁾과 연관된다. 물론 기록화 대상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되지만, 실제 이 전략을 적용한 사업에서는 기관의 기능분석을 토대로 기록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많다. 이때 단일 기관 중심의 기능분석이 아니라 포괄적 기능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gelika Menne-Haritz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오히려 ‘능동적 수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는데, 그녀는 아키비스트가 생산자 및 이용자와 협력할 때 이는 기록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기록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³⁰⁾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비기록학적이라는 Terry Cook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³¹⁾

실용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실제 적용에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이였다. 1996년 Jennifer Miller는 평균 20년의 경력을 가진 16명의 대학 아키비스트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수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아키비스트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비현실적

29) Terry Cook 1992, 이승역 2005에서 재인용.

30) Terry Cook. 1992.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Summer 1992): 181-1; Angelika Menne-Haritz. 1994.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American Archivist* 57(Summer 1994): 528-2. Malkimus 2008, p. 391에서 재인용.

31) 최근 Terry Cook은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에서 기록의 맥락 해체를 주장한 바 있어 입장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라고 답했다. 한 기관을 넘어 중앙 집중적인 평가를 하기에 실제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수집은 이미 어렵다고 확인되었으며(Terry Abraham),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미래의 편익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Frank Boles).³²⁾

그러나 Malkimus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비판들은 서부 뉴욕과 밀워키에서 나타난 부정적 결과만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들 프로젝트에 가려 조용히 성공을 거둔 다른 프로젝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LGBT-RAN와 같은 게이트웨이 사이트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추진된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Terry Cook은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데,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추상적이고 일반론이라는 지적이다. 그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구조와 범위를 정하기 전에는 어떤 주제도 추상적이고 무정형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대표적인 기록을 선별한다는 대원칙 외에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절차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는 지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한계점에 분명하다.³³⁾

3.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 사례

1) 사례 개요³⁴⁾

32) Frank Boles, "Mix Two Parts Interest to One Part Information and Appraise Until Done: Understanding Contemporary Record Selection Processes," *American Archivist* 50 (1987): 356-8;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 (Winter 1991): 44-2. Malkimus 2008, p. 390에서 재인용.

33) Terry Cook. 1992. Malkimus 2008, p. 391에서 재인용.

34) Malkimus 2008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힘.

Malkimus는 미국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의 2개 프로젝트, 미국 역사출판 및 기록위원회(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NHPRC)가 재정 지원한 2개의 지역 기반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웹기반 프로젝트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종교 아카이브즈 네트워크(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eligious Archives Network, LGBT-RAN)를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역기반 프로젝트인 서부뉴욕과 밀워키 시의 기록화 사업은 실패 사례로, AIP와 LGBT-RAN은 성공 사례로 지목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표 1〉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기간	주관기관	자문위원회	재정지원
현대 물리학사 (History of Recent of Physics)	1961-1965	미국물리학회	명망 있는 물리학자와 역사학자.	2개년 간 2회 연속 NSF 지원금, 지속적인 AIP 지원
서부 뉴욕의 기록화 (Documenting Western New York)	1986-1988	서부뉴욕 도서관 자원 위원회 (WNYLRC)	지역 역사가, 아키비스트, 사서, 법률고문	2개년 NHPRC 지원금
밀워키 도시의 기록화 (Documenting Metropolitan Milwaukee)	1989-1991	밀워키시 도서관위원회 (LCOMM)	기록관 행정가, 주제전문가, 아키비스트	2개년 NHPRC 지원금
다기관 협력연구 (Study of Multi-Institutional Collaborations)	1989-2001	미국물리학회 물리학사센터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사회학자, 과학자, 과학행정가	10개년 연구, 3단계, NSF, NHPRC, Mellon, 에너지부의 지원금; AIP의 지속적 지원
성적 소수자 종교 아카이브즈 네트워크(LGBT-RAN)	2000-계속	시카고신학대학과의 독립적이며 느슨한 연대조직	활동가, 성직자, 아키비스트, 사서, 전문 역사가	3년 단위의 보조금, 지속적 모금

자료: Doris J. Malkmus. 2008, p. 392.

그러나 여기서 현대 물리학사 프로젝트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형

성되기 이전인 60년대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후속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다기관 협력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LGBT-RAN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화 범위 지정, 위원회 임명, 주관기관 설정, 프로젝트 실행 설계, 재정 및 행정 지원의 안정화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 서부 뉴욕 프로젝트

서부 뉴욕을 기록화하기 위해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추진되었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 기관에 대한 기록조사와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완전히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Richard Cox는 서부 뉴욕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화 한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었고, 기록화의 범위가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념의 한계를 넘어섰다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역사가, 이용자, 생산자, 아키비스트, 사서 등 지역 역사계의 소통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하였다.

- 밀워키 프로젝트

이는 도시 환경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이다. 첫 해에는 지역 내 기록관들의 협력적 수집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수집정책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소장 기록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차년도에는 분야별 주제전문가가 목록 기록을 평가한 후 기록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끝났다. 참여기관에 부과된 기술업무가 과다했고, 통일된 수집정책에 합의하는 기록관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참여했던 사서나 아키비스트들이 이 프로젝트를 채굴장을 헤매다 지쳐 죽어버린 마스토돈으로 비유한 것도 인벤토리와 기술 작성 업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

기 때문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Timothy Ericson은 참여기관들의 협조 부족을 실패 원인으로 들었다. 일부 참여 기록관의 컬렉션에 대한 부적절한 지적 통제, 참여 기록관들이 전 도시의 수집전략에 맞추어 그들의 수집 정책을 수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결국 이 전략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천여 건 이상의 기록 목록이 작성되어 OCLC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고, 시 지도자, 언론, 대중들에게 역사 보존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성과로 들고 있다.

- 다기관 협력 연구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

물리학사를 기록화하는 프로젝트는 훼손되기 쉬운 물리학 분야의 역사 문서의 보존 필요성을 절감한 물리학사 연구자들이 시작하였다. 근대 과학연구 기록을 수집하는 아카이브즈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학자들은 근대 물리학의 1세대들이 아무런 기록도 남겨주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의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58년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역사적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열게 된다. 1962년에는 과학사학회(History of Science Society)가 “과학 기록에 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Science Manuscripts)”를 개최하여 과학 문서 보존의 시급성을 논의하였고, 이후 미국물리학회와 미국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마스 쿤이 이끄는 기록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물리학 연구를 기록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AIP 센터는 물리학분야의 다기관의 협력적 기록 생산과 전자적 소통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AIP 센터는 1989년부터 10여년에 걸친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다기관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후(戰後) 물리학의 역사를 기록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2001년 발행된 최종보고서에는 협력적 연구를 기록화하기 위한 유형화, 평가 기준, 현행 기록관리 실무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협력의 기록화와 태생적 디지털 기록(born digital documentation)에 대한 혁신적이고 탐구적인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Malkimus 2008).

• LGBT-RAN 온라인 프로젝트

이는 앞의 3개 프로젝트들에 비해 덜 알려진 프로젝트로서 온라인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추진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애초에 성적(性的) 소수 종교지도자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자 했을 때는 대부분의 기록이 이미 여러 기록관에 기증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 이들 컬렉션을 링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LGBT-RAN은 전 세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종교 운동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고 학술 연구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갖는다.³⁵⁾ LGBT-RAN은 웹을 통해 성적 소수자인 종교지도자와 집단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역사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센터, 즉 가상 아카이브이다. 이는 2001년 시카고 신학원(Chicago Theological Seminary)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어 2008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종교계 및 관료계의 레즈비언, 게이 연구센터(Center for Lesbian & Gay Studies in Religion and Ministry)’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사는 기록을 보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술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LGBT-RAN은 성적 소수 종교지도자 및 집단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35) 이 네트워크의 사명은 성적 소수자의 종교운동에 관한 개인기록과 조직기록을 확인, 수집, 보존하도록 지원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이 운동에 대한 학술연구와 역사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LGBT-RAN에 대한 설명은 <<http://lgbtran.org/About.aspx>>에서 인용(2010. 6.7 접근).

다. 현재 웹 사이트를 통해 200명의 전기 정보, 175개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종교 컬렉션, 구술사, 온라인 전시, 월간 뉴스레터 아카이브즈 등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 이민 집단들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록화 프로젝트인 Moving Here도 한 사회의 소수자들의 기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지만 방법론은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 기타 연구와 프로젝트

이밖에도 많은 논문들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스턴 주변의 128번 고속도로 지역의 기술(1987), 뉴잉글랜드의 레크리에이션(1987), 북 캘리포니아의 석영 채굴(1990), 보수 유대주의(1994) 등의 주제를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Cox는 복음주의의 종교(1986), 건축기록(1996)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제안 중에는 기능 분석과 연계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첫째, 기독교 복음주의를 기록화 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과 활동을 밝히기 위한 복음주의 아카이브즈 컨퍼런스가 1988년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7개의 기록화 영역을 제안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향한 첫 단계로서 각 영역별로 현재 기록화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Joan Krizack은 보건 분야에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을 제안하였는데, 우선 한 기관의 기능분석에서 출발한 후 중복을 피하고 완전한 역사기록을 조정하기 위해 그 분야의 다른 기관의 기능분석 및 협력으로 확장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 Ellen Garrison은 대중음악센터(Center for Popular Music)의 수집 활동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와 같이 주로 자

문위원회를 활용한 단일 기록관의 수집프로젝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인 엄격한 사전 기획과 다기관 접근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주창자인 Helen Samuels는 자신이 고안한 전략을 단일 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녀는 1992년 『대학의 대표 기록 : 근대 대학의 기록화(Varsity Letters: Documenting Modern Colleges and Universities)』라는 책에서 기관별 기능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했다.³⁶⁾ 이 방법은 아키비스트들이 기관의 행정적 위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기관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그림을 그린다는 관점에서의 기록화를 촉구했다. Samuels는 기능분석의 근본적 개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와 같지만 여기서는 협력적인 활동계획이 아니라 개별 기관을 위한 도구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1)분석과 계획이 수집에 선행되어야 하고, (2)공식 기록만큼 비공식기록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사무엘스는 주장한다. 이는 대학기록관리를 위한 능동적 기록관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로 보기는 어렵다.

2) 시사점

Malkimus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공 조건을 (1)명확한 기록화 범위 설정 (2)전문성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3)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주관기관의 역할 (4)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 (5)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직원 배치 등으로 꼽았다.

36) Samuels, Helen Willa. 1998.

기록화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거의 어떤 주제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들은 거의 실패하였다. 원인은 기록화의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규정된 프로젝트는 기록화해야 할 대상이 지리적 범위 내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부 뉴욕과 밀워키 프로젝트에서는 역사, 환경,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범주를 만들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무엇을 기록화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특히 참여자들 간에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의 미네소타와 북 다코타의 접경에 있는 Red River Valley의 농촌 변화를 기록화 하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에서는 농촌 주민, 역사가, 아키비스트들이 참여하였는데, 전문가와 주민들이 “농촌 변화”의 정의 및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기록화 할 것인가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사례 역시 농촌사회의 장기적 사회·문화적 변동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기록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³⁷⁾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기록화해야 할 주제를 잘 알아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어떤 기록이 중요한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서부 뉴욕이나 밀워키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역사학회, 기록보존소, 대학 등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밀워키 프로젝트에서는 12개 주제별로 자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세부 분야별로 기록화해야 할 영역을 평가하고자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지리적 영역이라는 기준이 너무도 막연했고 자문위원들은 각 주제별 기록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비해 AIP 프로젝트의 경우 물리학자, 역사학자가 참여한 사례로 이

37) Horton, “Cultivating Our Own Garden,” pp. 29--31. Malkimus, 2008에서 재인용.

들의 주제 이해, 역사 보존에 대한 열정은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물리학은 학술지를 통해 그 분야의 구성원, 학문의 구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분야 기록의 생산이나 존재양식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물리학자)이 참여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학문분야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개체(서부 뉴욕과 같이)의 경우 평가 기준을 제시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찾기 어렵고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AIP 프로젝트의 자문위원들은 전문성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들이었다는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의 지속적 참여가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학계의 합의를 이끌었다.

주관기관의 역할도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급적 주관기관의 사명이 프로젝트의 사명과 동일해야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부뉴욕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었던 서부뉴욕도서관자원위원회(Western New York Library Resources Council, WNYLRC)는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컨소시엄으로서, 이 전략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기보다는 주변적 역할에 불과하였다. 밀워키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었던 밀워키 시 도서관위원회(Library Council of Metropolitan Milwaukee, LCOMM)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역 기반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는 주관기관이 재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물리학회(AIP)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AIP가 물리학사센터(Center for the History of Physics)를 개관한 것도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과학 분야 역사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잠재적 기증자들이 안심하고 기록을 맡길 수 있도록 하였고,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기관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매우 적합한 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좁은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AIP는 단계적 추진을 통해 성공한 사례이다. AIP는 처음 2년에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기록화에 착수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재정지원자들과의 장기적 관계 유지는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기록화라는 극히 복잡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기간과 주관기관의 지원 미흡이 뉴욕과 밀워키 프로젝트의 주요 실패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에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해관계자가 기록 보존의 시급함을 인식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LGBT 종교운동 지도자들이 기록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AIDs로 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LGBT 운동가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적극적 행동 없이는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AIP 프로젝트 역시 1세대 물리학자들의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한다는 긴박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서부뉴욕이나 밀워키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시작한 동기와 대비된다. 물리학이나 LGBT 프로젝트는 해당 공동체 내에서 출현한 반면 서부뉴욕이나 밀워키에서는 기록 수집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아카이비스트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해당 기록화 사업에 대한 긴박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지역 기록화를 위한 제안

1) 국내 사례와 지역 기록화의 방향

지역 기록화와 관련된 국내 프로젝트 사례는 권순명의 연구³⁸⁾에서 소개된 바 있다. 전시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역사를 기록화하려는 시도로는 함백역사(驛舍) 복원사업이 있고 이는 라스베가스100년사를 보여주는 전시 프로젝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지역 주민들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풀무원 설립 프로젝트, 성미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이 있고, 사라져가는 장소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경관 프로젝트, 새만금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록, 오늘>은 문화유산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현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³⁹⁾ 열린 구조를 통해 전문가와 기록화 대상이 함께 기록을 생산함으로써 소통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가지며, 서울 종로 피맛골, 인천 배다리마을 옛 양조장 등의 기록화를 시도하였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거나 실험적 성격인 경우가 많지만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및 지역민의 기억을 기록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역 기록화를 추진할 때 짚어보아야 할 점은 ‘기록화’의 개념이다. 기록656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분야나 연구자에 따라, 혹은 같은 글 안에서도 문맥에 따라 다른 함의를 드러내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행위, 말,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기록화는 ‘생산’의 개념이다. 가령 무형문

38) 권순명, 2008.

39) 유영산·이현정·김보인·정은진·우현민,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카이빙 한 오늘」,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09.

화재의 기록화는 휘발성 있는 행위나 동작, 소리, 의례 등을 후대에도 재현이 가능하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기록화사업에 관한 훈령⁴⁰⁾에 의하면 기록화 사업은 “문화재 실측 기록, 옛 도서·옛 문서·금석문 등의 원문 이미지, 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기록 등 문화재 원형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문화재 원형의 보존과 전수, 보급을 위해 영상물, 도서, 음반 등 다양한 기록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록은 연구기관이나 관련 전문가가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⁴¹⁾ 즉 문화재 기록화는 주로 생산의 관점에서 서 있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도큐멘테이션은 선별적 수집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기록 생산은 구술 등과 같이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물론 ‘도큐멘테이션 전략’에는 맥락에 비추어 결락된 기록을 생산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기록 생산까지 확장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미리 그려놓은 그림에 짜 맞추는 식으로 기록을 생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에서는 생산보다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구술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생산을 허용하거나 ‘무형문화재의 전수 활동’ 등과 같이 현재진행형인 대상의 경우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할 것이다.⁴²⁾

40) 문화재청은 2007년 5월 29일 문화재청 훈령으로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2008년 6월 3일 개정됨.

41) 문화재청장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19조, 1항).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9조, 2항).

다만 양자의 해석에서 공통점은 기록화 되어야할 ‘무엇’이 존재하고, 그 ‘무엇’을 재현하기 위하여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경우 원형이 존재하므로 원형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기록화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⁴²⁾,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경우 기록화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사건, 현상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을 기록화 한다는 것은 우선 지역의 사람, 문화, 역사, 사회 등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 재구성, 보존하는 일련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지역 현실에서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로컬리티는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이다.⁴⁴⁾ 따라서 기록화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42) 이와 관련하여 이승억은 아키비스트가 기록 생산에 개입할 수 있지만 개입의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억, 2005, pp. 78-79.

43) 정수진,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한국민속학』, 제44집 2006.12, pp. 463~490.

44) 로컬리티는 ‘지역성’이라는 용어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로컬리티’ 담론은 지역성이 내포하는 근대적 담론에서 벗어나 탈근대적 사유를 강조하며, 보편성과 전체성을 지양하고 개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향한다. 한편 로컬리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로컬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개념이다. 출처: 박규택,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사회·역사 구성주의 관점」, 『한국민족문화』 33, . 2009.3, pp. 159.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즉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 트웨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점은 앞서 밝혔듯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Terry Cook이나 Menne-Haritz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게이트웨이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협력적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화 대상의 선정 - 선택적·집중적 기록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패 요인은 지역이라는 설정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범위가 넓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Cox와 같이 지역의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⁴⁵⁾ 서구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어떤 기록을 수집하여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기록화 전략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후대를 위해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김익한은 시대와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의 관점은 다양하며 다양성의 관점에서 기록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기록은 생산 시점의 사회, 조직, 혹은 개인이 설정 혹은 지향하고 있던 목적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평가”해야 하고, “역사학자의 해석적 작업 방식과는 달리 기록관리에서의 평가는 본래 행위의 적절한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Richard Cox는 “기록평가 선별 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연구나 경향이 아니라, 무엇이 당대 사회와 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인지를 분석하는, 예측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야 한

45) Richard Cox는 지역을 충분히 기록화하려면 지역의 행위나 활동의 핵심증거를 가진 기록 일체(증거적), 생산기관이 증거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기록 외에 연구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기록 일체(정보적), 특정 시기 그 사회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조직의 활동, 사건, 경향 등에 관한 선별된 기록(대표적),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특정 시기의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포괄적)을 필요로 한다고 정리하였다. Cox, Richard J.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 London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6, p. 67.

46) 김익한, 2006, pp. 179~203.

다”⁴⁷⁾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는 어떤 영역의 어떤 활동을 재현해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현재 기록화 추진 주체의 인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Cox의 제안도 선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그다지 의미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기록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자문 위원회’라는 블랙박스 안에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Ham이 주장처럼 아키비스트가 사회의 표상이 될 대표적 기록을 선별하는 것도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역의 역사를 대표하는 주제나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표성은 결국 주관기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기록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록화 영역은 시급하게 기록화하지 않으면 사라진 기억이 될 수 있는 영역, 공공기록만으로는 남겨지지 않거나 편향된 기억만이 남겨질 우려가 있는 영역 등은 우선적 도큐멘테이션 영역이 될 것이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록화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느냐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지역 내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역의 경우 지역 및 지역민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하위주제를 설정하되, 전문가 집단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47) Cox, Richard J.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사초 평가 원칙」, 『기록학의 평가론』, 오향녕 편역, 서울, 진리탐구, 2005.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Vol. 38, Fall 1994, 11~36).

영역, 망각이나 훼손, 멸실이 우려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아래 구체적인 세부주제를 분류하고, 세부 주제의 역사 및 기록 양식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열정을 갖춘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선 기록화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Zinn이 역설하였듯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형성 배경 자체가 중심의 역사가 아닌 주변부 역사, 주류 기억이 어닌 대항 기억을 기록화하는 데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공공기록이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주제는 실천적 기록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치관이나 관심을 공유하는 집단이 평가선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아키비스트들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 이러한 집단들을 발굴하고 기록화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진성은 기억의 정치학에서 문화사로의 전환을 주장했는데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의 성긴 이론적 틀로 재현하지 않고 증언자의 고유한 정신과 기억에 들어가서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화영역 내에서 평가선별의 주체는 내부자들이어야 하고 아키비스트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가령 지역의 문화예술운동, 수물지역, 빈민운동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활동가가 평가선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상반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내부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다만 그 과정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기술(description)에서조차 아키비스트의 가치관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아키비스트가 어떤 시각으로 기술을 했는지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학자들도 있다.⁴⁹⁾

48)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 '기억'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통권76호), 2006. pp. 451-483.

49) Light, Michelle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65, Fall/Winter 2002, pp. 216-30.

아키비스트나 사서의 노력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동질적 집단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물리학사 연구자, 성적 소수 연구자 및 종교인 등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집단의 참여는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3)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 - 게이트웨이의 구축

지역의 기록화는 한국향토문화대전 등과 같이 지역의 각 주제에 대한 설명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연계하여 기록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록화는 ‘수집’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은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을 물리적으로 입수하는 것뿐 아니라 링크를 통한 재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소장기관 및 소장자의 컬렉션에 대한 소재정보와 더 나아가 디지털 사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주제 분석을 토대로 한 맥락 속에서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GBT-RAN은 이러한 개념을 단일 기관을 넘어서 확장시킨 사례이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이렇게 웹 상에 기록 게이트웨이(archival gateway)를 개발·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연계(digital connectivity)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핵심인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⁵⁰⁾

특히 우리의 경우, 지역의 기록들은 소장자나 소장기관별로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소재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을 위한 기록화 전략은 지역 기록에 대한 종합적 파악

50) Malkimus 2008.

과 지역의 특정 주제(사건, 운동, 공간, 인물 등)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2가지 측면의 사업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지역 기반 프로젝트가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기술 및 목록 작성에 대한 참여기관들의 부담 때문이었지만,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면 초기 구축비용은 많이 들지만 작업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역 내 기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단지 종합목록(union catalog)이나 통합적 검색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다. 기능 및 주제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도큐멘테이션 계획서에 의거하여 기록의 맥락을 정리하고, 분산적으로 보관 중인 기록을 맥락과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기능 및 주제 디렉토리 구조를 이용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다. 복수 기관이 소장한 기록의 통합검색 사례로는 유럽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이 소장한 600만 건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Europeana, 호주 의 50여 개 공공 및 민간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이 소장한 호주 관련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Picture Australia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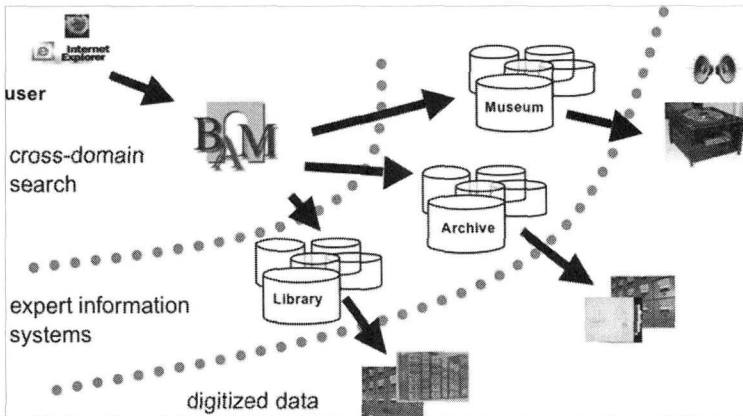
또한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예는 독일의 BAM(Bibliotheken, Archiven, Museen)을 들 수 있다.⁵¹⁾ BAM은 도서관, 보존기록관, 박물관을 위한 인터넷 포털이다.⁵²⁾ 다양한 유형의 수집기관 즉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디지털 자원을 하나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AM은 2001년 5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버그(Baden-Württemberg) 주의 도서관서비스센터(Library Service Centre Baden-Württemberg), 아카이브즈

51) Kirchhoff, Thomas; Werner Schweibenz; Jörn Sieglerschmidt, Archives, libraries, museums and the spell of ubiquitous knowledge, *Archival Science* v.8, no.4, 2008.12, pp.251-266

52) <http://www.bam-portal.de>

(Landesarchives Baden-Württemberg), 만하임 기술·노동재단박물관 (Foundation Museum for Technology and Labor in Mannheim)이 독일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 프리시안 문화유산재단(Prussi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바덴-뷔르템버그 주립 아카이브즈(State Archives of Baden-Württemberg), 만하임 주립 기술·노동박물관(State Museum for Technology and Work in Mannheim), 바덴-뷔르템버그 도서관 서비스센터(Library Service Centre Baden-Württemberg)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바덴-뷔르템버그 도서관서비스센터이다. BAM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이러한 지역차원의 서비스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 포털이 구성된다면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구축된 포털에 비해 보다 내실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BAM의 구조



자료: Kirchhoff, Thomas; Werner Schweibenz; Jörn Sieglerschmidt, 2008.

그러나 지역의 기록정보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 검색 중심의 구조와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록건이나 기록철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컬렉션 레벨의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 내 컬렉션 소장 지도를 보여주고 이를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게이트웨이에는 공공 및 민간기록, 기록을 포함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4)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

지역 기록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수집기관들을 포함하는 통합검색(cross-domain search)과 아울러 로컬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요 주제, 사건, 운동, 인물, 공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색도구(인벤토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기관에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 향토도서관,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 지방문화원, 기록관, 지역사 연구소, 지역사 편찬기구, 기념관, 개인 소장자, 기타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은 개인들이 누구나 자신의 기억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구글맵 등을 이용하여 지역(공간)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디지털로 남기고 있다⁵³⁾. 이러한 개인의 기억기록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후대의 역사가 된다. 지역 게이트웨이는 흩어져있는 개인의 공간 기억도 모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효과적인 아웃리치와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이민 집단들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록화 프로젝트인 ‘Moving Here’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53) 이동후, 「도시공간 이미지의 재구성: 이동성, 연결성, 그리고 디지털 사진의 상상적 지리에 관한 탐색적 고찰」, 『언론과 사회』 15(4): 2007.11, 123~155.

개인이나 가족, 집단의 이민사를 이야기구조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면 디지털을 이용한 지역 기록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기록화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록의 수집에 초점을 둔 도큐멘테이션 전략과는 달리 물리적 수집보다는 소재 파악, 맥락과의 연계, 접근가능성 유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각화 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열린’ 기록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집단 혹은 마니아 집단이 적극 기록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웹 2.0 도구를 활용하여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다원적 재현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⁵⁴⁾

5) 기록화 수준의 결정

지역 기록화를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수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 기관의 수집 정책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기관의 정책에 협력 수집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적 기록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 때 각 기관들은 수집 영역의 분담뿐 아니라 각 영역별 수집 수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에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의 수집뿐 아니라 링크 등을 포함한다고 볼 때 수집의 수준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된다.

이를 위해 ‘컨스펙투스(conspectus)’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54) 기록학에서 ‘재현(archival representation)’은 정리와 기술을 통해 기록을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리와 기술 과정은 원래 활동의 재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Yakei, Elizabeth,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3, 2003, pp.1-25. 여기서 다원적 재현이라고 함은 다양한 스토리에 맞게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다. 컨스펙터스는 영역별로 수집의 강도를 표로 구성한 것이다. 컨스펙터스는 사전적으로 ‘개요’ ‘적요’ 등을 의미하지만 미국 학술도서관협회(ARL) 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동적 장서관리(Cooperative Collection Management: CCM)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협력적 장서관리를 위해서는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장서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구축된 장서의 강도(existing collection strength)와 장래에 수집할 장서의 집중도(future collecting intensity)를 요약해주는 도구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주제와 분류기호 순에 따라 강도 수준이 ‘0’에서 ‘5’라는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된다⁵⁵⁾(장덕현 2009). 도큐멘테이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집 강도는 결락 기록을 생산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전자자료의 경우, 강도뿐만 아니라 유지 수준도 정할 필요가 있다. 장덕현(2009) 등의 컨스펙터스 모형을 변형하여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수준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연계(Linked) : 이 영역의 기록은 다른 곳에 저장(hosted)되어 있지만 해당 기관은 위치 정보만 제공. 기록에 대한 통제권은 없음
- 중개(Brokered) : 이 영역의 기록은 물리적으로 다른 기관이 저장·유지하지만, 해당 기관은 기록에 대해 협의된 접근 권한을 가짐
- 미러링(Mirrored) : 다른 곳에 존재하는 기록의 복사본이 해당 기관에 저장되어 있으며 아카이빙 하지 않음. 다른 기관이 이 기록의 유지 책임을 짐
- 서비스(Served) : 이 영역의 기록은 해당 기관에 저장되어 있으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수준은 아님
- 장기보존(Archived) : 이 영역의 기록은 해당 기관에 저장되어 있으며,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존

55) 장덕현,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9. 6, pp. 31~44.

이러한 컨스펙터스의 원리를 적용하여 협력 수집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도큐멘테이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 사업으로 인하여 참여기관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물리학회에서 다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연구에서 산출되는 디지털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기록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분야마다 기록이나 소통 형식이 다르며 이는 그 분야나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통한 연구 축적이 더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를 폭넓게 재현한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한편 디지털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전략은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다양한 공동체와의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아카이브즈가 공동체의 삶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준다⁵⁶⁾.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기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와 함께 실천적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멀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은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기록화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방기록관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지역 기록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의는 어쩌면 누가 주관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기타

56) Malkimus 2008.

집단이나 개인이 담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지역 기록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서 있다. 적극적인 논의와 크고 작은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Seol, Moon-Won

Documentation strategy has been experimented in various subject areas and local regions since late 1980's when it was proposed as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methods by archival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Though it was criticized to be too ideal, it needs to shed new light on the potentialities of the strategy for documenting local regions in digit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lementation issues of documentation strateg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documenting local regions of Korea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y.

The documentation strategy which was developed more than twenty years ago in mostly western countries gives us some implications for documenting local regions even in current digital environments. They are as follows;

Firstly, documentation strategy can enhance the value of archivists as well as archives in local regions because archivist should be active shaper of history rather than passive receiver of archives according to the strategy. It can also be a solution for overcoming poor conditions of local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Secondly, the strategy can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collecting institutions including museums, libraries, archives, cultural centers, history institutions, etc. in each local region. In the networked environment the cooperation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than in traditional environment where the heavy workload of cooperative institutions is needed.

Thirdly, the strategy can facilitate solidarity of various groups in local reg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ategy projects, it is essential to collect their knowledge, passion, and enthusiasm of related group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strategy. It can also provide a methodology for minor groups of society to document their memorie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f documenting local regions in consideration of current archival infrastructure of Korean as follows;

Firstly, very selective and intensive documentation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comprehensive one for documenting local regions*. Though it is a very political problem to decide what subject has priority for documentation, interests of local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professional group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riously.

Secondly, it is effective to plan integrated representation of local history in the distributed custody of local archives. It would be desirable to implement archival gateway for integrated search and representation of local archives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archiv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try digital documentation using Web 2.0

technologies. Documentation strategy as the methodology of selecting and acquiring archives can not avoid subjectivity and prejudices of appraiser completely. To mitigate the problems, open document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reflecting different interests of different groups.

Fourth, it is desirable to apply a conspectus model used in cooperative collection management of libraries to document local regions digitally. Conspectus can show existing documentation strength and future documentation intensity for each participating institution. Using this, documentation level of each subject area can be set up cooperatively and effectively in the local regions.

key words: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l appraisal, local archives,
records acquisition, documenting localities